

초·중등 예비교사와 교사의 식생활 교육에 대한 인식과 식생활 관리 역량

김윤화^{*1)}

대구대학교 사범대학부설 교육연구소 연구교수*

The Awareness of the Dietary Education and Dietary Management Competency of (Preliminary) Teachers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Yunhwa Kim^{*1)}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Daegu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Abstract

Attitudes to the health and dietary life of teachers affect their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ietary and education awareness, eating habits and dietary management competency of the preliminary teachers and teachers. Data was collected from 812 pre-service teachers and teachers in South Korea using a 5-Likert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 in October to December of 2017. Data was analyzed using factor analysis, reliability,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d correl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Dietary and education awareness was classified into dietary concern and dietary management stress. Eating habits composed of healthy eating habit and bad eating habit. Dietary management competency was sub-grouped into dietary knowledge, cooking, dietary sanitation and safety, and environment. The all factors of pre-service teachers and teacher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except for the environmental ability factor ($p < 0.01$). All facto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age and the number of meal preparation ($p < 0.05$). The eating habit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ces from sex. The major and health condi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except dietary management stress and cooking factors ($p < 0.01$). The obesity index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ietary concern, bad eating habits, and cooking factors ($p < 0.01$). In conclusion, it was required to education and develop education materials that can help the STEAM education using the dietary area. The dietary education program for the pre-service teachers and the teachers should increase the number of participating in the meal preparation considering th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so that the dietary management competency and the healthy eating habits should be formed.

Key words: 식생활 교육 인식(Dietary education awareness), 식생활 관리 역량(Dietary management competency), 식습관(Eating habits), 예비교사(Preliminary teacher), 교사(Teacher)

1) 교신저자: Kim, Yunhwa, 201 Daegudae-ro, Gyeongsan-si, Daegu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Tel: 053-850-4283, E-mail: yunhwa47@hanmail.net

2) 연구지원: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고 수행되었음(No. NRF-2016S1A5B5A07921094).

I. 서론

가정교과 교육은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재와 미래의 생활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과 태도 함양을 목표로 실시되고 있다. Chae, Park, Kim & Han(2017)은 미래 가정과 교육은 가정생활과 관련된 지식과 기능, 태도 습득과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주도적이며 창의적인 가정생활을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생활교과로서의 가정교과 교육 뿐 아니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과교육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가정교과 교육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가정생활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개인 및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과 태도를 목표로 녹색생활 교육이 강조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2011). 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중등 교과과정의 연계성이 강조되고, 지식의 활용과 융합, 긍정적 가치관, 실천적 태도, 삶을 향상시키려는 태도, 배려와 나눔의 가치와 태도를 가지며, 실천적 문제해결 능력, 생활자립 능력, 관계형성 능력을 목표로 생활 안전을 강조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가정교과 교육의 주요 분야인 식생활 영역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 영역으로 밥상머리 교육으로 강조되었던 분야이다. 학교교육과정에서는 가정교과 뿐 아니라 도덕, 국어, 과학 등 다른 교과영역에서도 주요 소재로 다루어지고 있는데(Yang, Chae, Yu & Park, 2015), 식생활 영역은 생활과 밀접하고, 학생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 창조를 강조하는 현재 교육과정의 융합 교육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Kim, 2018). Kim과 Park(2017)은 가정교과의 식생활 영역에서 불량식품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스토리텔링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다른 교과와의 융합 교육을 강조하였고, Lim, Han과 Kim(2018)은 창의적 능력함양을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식생활 영역은 가정교과 교육으로 뿐 아니라 생활과 연계하여 다른 교과와의 융합 교육을 위한 주요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Kim, 2018).

최근 환경보호, 부적절한 식생활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와 웰

빙 트렌드로 인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불량식품의 사회적 문제 등으로 식생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언론기관에서는 잡지, 신문, 뉴스, 시사·교양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비자들을 위한 식생활 안전과 건강 식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Choi, 2011). 또한 음식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음식을 중요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음식에 대해 잘 알고, 음식을 만들거나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먹을거리 생산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는 음식시민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Kim, 2012).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국민의 건강과 녹색 식문화에 대한 비전을 갖고, 환경과 건강, 감사·배려를 고려하는 바른 식생활 교육도 실시되고 있다(Kim, Cho, & Kim, 2015). 예비교사와 교사들의 식생활 또한 여러 가지 영양 및 건강문제들에 부딪히게 된다.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식생활과 관련한 정보들이 쏟아지면서 일반인들 뿐 아니라 예비교사와 교사 및 초·중등 학생들도 식생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교사들은 아동 및 청소년의 식생활 습관, 영양 지식, 영양 태도 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Yoon, Choi, & Lee, 2002). 따라서 현장에 있는 교사와 미래 학생지도의 주역인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식생활 영역이 융합 교육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식습관 및 식생활 관리 역량을 알아보는 것이 요구된다. 이는 현재와 미래의 학교교육을 책임질 교사와 예비교사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건강증진과 더불어 생활과 밀접한 분야와의 융합 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웰빙, 환경, 안전, 창의·융합 교육 등이 주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현재의 사회문화 속에서 식생활 영역을 활용한 융합 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러한 융합 교육을 위해 예비교사와 교사의 식생활과 교육에 대한 인식, 식습관, 식생활 관리 역량을 파악해보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식생활과 교육에 대한 인식, 식습관, 식생활 관리 역량을 요인분석하고, 유형화한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직업, 성별, 전공, 연령대, 건강상태, 비만도, 식사준비 참여 횟수)에 따른 식생활과 교육에 대한 인식, 식습관, 식생활 관리 역량의 차이를 비교·분석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관련문헌 고찰

1. 식생활 교육

일상생활 속에서 올바른 식생활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존의 영양교육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식생활 교육이 실시되고 있고(Lee, 2017a;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6), 식생활 교육에서는 편식 교정, 올바른 식습관 정립, 식품에 관한 지식, 식사예절 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Jung, 2012). 식생활은 가정교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욕구 충족에서부터 안정감, 소속감, 사회적 지위 표현, 자아실현의 욕구충족 기능을 한다(Moon & Lee, 1986). 식생활의 주요 내용은 문학, 역사, 공학, 의학, 자연과학, 경제 등의 분야에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어(Hyun, Lee, & Kim, 2014; Kim & Kim, 2016b; Ra, 2015) 융합 교육을 실시하기 좋은 영역이 될 수 있다. 가정교과에서는 ‘청소년의 식생활 문제’와 ‘균형 잡힌 식생활’, ‘녹색 식생활’, ‘한국형 식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청소년들이 당면한 식생활 문제에 대한 이론적 기초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과학교과에서는 ‘영양소의 역할’, ‘소화 흡수’ 등에 관한 과학적 이론과 원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육과 보건교과에서는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도덕교과에서는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인의 정체성’과 ‘환경’을 중요시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Yang et al.,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는 창의성 개발을 위한 융합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식생활 영역은 삶의 기본 영역이고, 생활 밀착형 분야이기 때문에 실생활에서의 활용을 중요시하는 현 교육과정에서 식생활 영역과의 융합 교육은 대부분의 교과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식생활 영역을 활용한 연구는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적용 연구(Kang, 2017),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창의융합(STEAM)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Sang & Kim, 2016), 대학생의 식생활 관리와 영어 융합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Lee & Lee, 2016), 문화와 과학의 융합적 관점에서 본 전통음식의 역사와 미래(Kim, 2015)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 예비초등교사의 식생활 능력에 미치는 영향(Kim & Kim, 2016a) 등이 이루어졌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녹색 식생활 교육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 조사(Kim & Kim, 2011), 초등교사의 식생활 교육에 대한 요구(Jeon & Lim, 2017), 식생활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Kim, Lee, Lee, & Jung, 2005), 초등교사의 바른 식생활 실천이 바른 식생활 교육의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Jeon & Lim, 2017) 등이 이루어졌으나 식생활 영역을 활용한 융합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인식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본 연구는 예비교사와 교사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식생활 관리에 대한 자료와 식생활 영역을 활용한 융합 교육에 유의미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2. 식생활 관리

식생활 관리는 식생활 전반에 관계되는 여러 요소, 영양 필요량과 식습관, 식비 예산과 식단 계획, 식품의 선정과 구입 방법, 조리법과 상차림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라고 정의된다(Lee, 2014). 개인의 식생활 관리는 자신이 가진 식생활 관리 역량에 좌우된다. 식생활 능력은 음식을 다룰 때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의 통칭으로(Kim & Lee, 2014, 2015; Vidgen & Gallegos, 2011) 접근, 계획 및 운영, 선택, 음식의 생산지, 준비, 식사, 영양, 언어 능력으로 제시되기도 하고(Vidgen & Gallegos, 2011), 식사와 건강, 소비자 의식, 요리, 식품 안전의 4개 주제로 대별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음식의 성질을 이해하고, 음식 섭취의 중요함을 알고 있으며, 음식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가공할 수 있으며, 분석하여 그것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상대적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다(Kim & Lee, 2014). 개인의 식생활 능력과 관련한 연구는 Lee(2017b), Yoon et al.(2002)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예비교사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식생활 관련 연구는 전통 식생활 실천에 대한 인식(Lee, 2014), 초·중 교사들의 식생활 습관(Yoon et al., 2002) 등의 연구들이 실시되었다. Kim과 Lee(2014, 2015)는 식생활 관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핵심 역량 중 자기관리 능력에 포함되어 필수적으로 길러야 할 능력 중 하나로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와 교사를 대상으로 식생활 영역을 활용한

융합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식생활 관리 역량의 측면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시기

본 연구는 2017년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서울·경기와 충청·전라·강원·경상지역의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1,1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822부를 회수하였으며, 부실 응답한 10부를 제외한 812부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예비교사가 408명(50.2%), 현직교사가 404명(49.8%)이었다(Table 1). 남자 248명(30.5%), 여자 564명(69.5%)이었으

며, 예비교사 중 남자는 161명(39.5%), 여자 247명(60.5%)이었고, 현직 남교사는 87명(21.5%), 여교사 317명(78.5%)이었다. 초등교육 전공 324명(39.9%), 중등교육 전공 488명(60.1%)이었고, 예비교사 중 초등교육 전공자는 133명(32.6%), 중등교육 275명(67.4%)이었고, 현직 초등교사는 191명(47.3%), 중등교사 213(52.7%)이었다. 20대 457명(56.3%), 30대 124명(15.3%), 40대 128명(15.8%), 50대 이상 103명(12.7%)이었다. 예비교사는 20대가 397명(97.3%)이었고, 현직교사는 20대 60명(14.9%), 30대 114(28.2%), 40대 128명(31.7%), 50대 이상 102명(25.2%)이었다. 스스로 인식하는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연구대상자가 185명(22.8%), 건강하다고 응답한 연구대상자는 390명(48.0%), 보통 194명(23.9%), 허약하다고 응답한 연구대상자는 43명(5.3%)이었다($p < 0.05$). 매우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예비교사는 84명(20.6%), 건강 189명(46.3%), 보통 1057명(25.7%), 허약 30명(7.4%)이었다. 매우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현직교사는 101명(25.0%), 건강 201명(49.8%), 보통 89명(22.0%), 허약 13명(3.2%)이었다. 저체중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s

Variables		Total (n=812)	예비교사 (n=408)	교사 (n=404)	N(%) χ^2
Sex	male	248(30.5)	161(39.5)	87(21.5)	30.75***
	female	564(69.5)	247(60.5)	317(78.5)	
Major	elementary	324(39.9)	133(32.6)	191(47.3)	18.24***
	middle and high	488(60.1)	275(67.4)	213(52.7)	
Age	20's	457(56.3)	397(97.3)	60(14.9)	562.77***
	30's	124(15.3)	10(2.5)	114(28.2)	
	40's	128(15.8)	0(0.0)	128(31.7)	
	50's -	103(12.7)	1(0.2)	102(25.2)	
Health condition	excellent	185(22.8)	84(20.6)	101(25.0)	9.95*
	good	390(48.0)	189(46.3)	201(49.8)	
	fair	194(23.9)	105(25.7)	89(22.0)	
	poor	43(5.3)	30(7.4)	13(3.2)	
Obesity index	under weight	65(8.0)	37(9.1)	28(6.9)	7.31
	normal weight	563(69.3)	290(71.1)	273(67.6)	
	over weight	157(19.3)	65(15.9)	92(22.8)	
	obesity	27(3.3)	16(3.9)	11(2.7)	
Number of meal preparation	everyday	274(33.7)	91(22.3)	183(45.3)	62.42***
	3-5/week	217(26.7)	112(27.5)	105(26.0)	
	1-2/week	159(19.6)	90(22.1)	69(17.1)	
	nothing	162(20.0)	115(28.2)	47(11.6)	
Total		812(100.0)	408(100.0)	404(100)	

* $p < 0.05$, *** $p < 0.001$.

군 65명(8.0%), 정상 체중군 563명(69.3%), 과체중군 157명(19.3%), 비만군 27명(3.3%)이었다. 식사준비 참여 횟수는 거의 매일이 274명(33.7%), 주 3-5회 217명(26.7%), 주 1-2회 159명(19.6%), 거의 참여하지 않는 연구대상자는 162명(20.0%)이었다. 매일 식사준비에 참여하는 예비교사는 91명(22.3%), 현직교사 183명(45.3%), 주 3-5회 참여하는 예비교사는 112명(27.5%), 현직교사 105명(26.0%), 주 1-2회 참여하는 예비교사는 90명(22.1%), 현직교사는 69명(17.1%), 거의 참여하지 않는 예비교사는 115명(28.2%), 현직교사 47명(11.6%)이었다. 대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IRB 심의면제를 받은 후 (1040621-2017.09.-HR-014-05) 실시되었다.

2. 설문 도구

식생활 능력과 관련한 Kim과 Lee(2015), Lee(2014), Yoon et al.(2002)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일반사항(7문항), 식생활 및 교육에 대한 인식(10문항), 식습관(10문항), 식생활 관리 역량(22문항)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고, 1, 2차 델파이 조사(식생활 및 가정교과교육 전문가 3인) 후 예비문항을 개발한다. 문항 내적일 치도는 Cronbach's alpha ($\alpha \geq 0.6$)로 평가하고, 참가자의 피드백과 타당성 검사를 통해 수정하여 예비척도를 개발하였다.

3. 통계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C+24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식생활과 교육에 대한 인식, 식습관, 식생활 관리 역량의 하위 차원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 를 이용하였다. 건강상태, 비만도, 식사준비 참여 횟수에 따른 일반사항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식생활과 교육에 대한 인식, 식습관, 식생활 관리 역량의 일반사항에 따른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와 Ryan-Einot-Gabriel-Welsch F를 이용하여 $p < 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식생활과 교육에 대한 인식, 식습관, 식생활 관리 역량의 각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식생활과 교육에 대한 인식, 식습관, 식생활 관리 역량의 요인분석

식생활과 교육에 대한 인식, 식습관, 식생활 관리 역량은 Varimax rotation에 의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식생활과 교육에 대한 인식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연

Table 2. Factor analysis of dietary and education awareness of the subjects

Factors	Loading	Eigen value	Accumulation variance(%)	Cronbach's α
I am interested in the dietary area (dietary culture, nutrition, food, cooking, hygiene, safety, etc.).	0.75			
I think dietary education is very important.	0.76			
Dietary concern (6) I think that the dietary area is very helpful for strengthening social capacity.	0.83	3.73	46.60	0.87
I think that the dietary area is a field where creative competence can be developed.	0.82			
I think that we can develop fusion ability through dietary education.	0.82			
I am interested in convergence education using the dietary area.	0.74			
Dietary management (2) I am annoying and hard to make food.	0.85			
I am psychologically burdened with dietary management that can meet nutrition, hygiene and safety.	0.85	1.52	18.95 (65.55)	0.64

연구대상자의 식생활과 교육에 대한 인식 요인분석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은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해 식생활 영역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한다, 식생활 영역은 창의적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식생활 교육을 통해 융합역량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식생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식생활 영역(식생활 문화, 영양, 식품, 요리, 위생·안전 등)에 관심이 많다, 나는 식생활 영역을 활용한 융합 교육에 관심이 많다는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식생활 관심도’라고 명명하였고, Cronbach’s α 0.87이었고, 설명력은 46.60%이었다. 요인 2는 음식 만들기가 귀찮고 힘이 든다, 영양, 위생·안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식생활 관리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내용의 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식생활 관리 스트레스’라고 명명하였고, Cronbach’s α 0.64, 설명력은 18.95%였고, 전체 설명력은 65.55%였다.

연구대상자의 식습관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식습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2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은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자주 먹는다,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적당한 양의 음식을 충분히 씹어 먹는다, 하루에 2번 이상 단백질(고기, 생선, 달걀, 콩류 등) 식품을 먹는다, 해초류와 우유 및 유제품을 자주 먹는다, 세계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는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건강 식습관’이라고 명명하였고, Cronbach’s α 0.82, 설명력은 39.23%이었다. 요인 2는 가공식품, 외식을 즐긴다, 짜거나 단 음식을 자주 먹는다 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나쁜 식습관’이라고 명명하였고, Cronbach’s α 0.74, 설명력은 22.58%였다. 전체 설명력은 61.81%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식생활 관리 역량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식생활 관리 역량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요인 1은 식품군별 영양조성과 기능을 알고 있다, 식품군별 식품분류 방법을 알고 있다, 식품의 생산, 유통, 처리과정을 잘 알고 있다, 식사를 준비할 때 영양소의 역할을 인식한다, 건강한 식생활 라이프(dietary life)를 가지고 있다, 식품의 품질과 가치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저장, 보관방법을 알고 있다, 식생활 가이드라인을 잘 알고 있다, 식품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한다, 식품을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내용의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식생활 지식’ 역량으로 명명하였고, Cronbach’s α 0.91이었으며, 설명력은 27.39%이었다. 요인 2는 주어진 레시피에 따라 음식을 만들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요리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안다, 주방기구 다루는 방법을 잘 알고,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는 내용의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조리’ 역량으로 명명하였으며 Cronbach’s α 0.56이었으며, 설명력은 14.65%이었다. 요인 3은 손을 깨끗하게 씻고, 위생적으로 요리한다, 건강하게 먹는 것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식품표시(유통기한, 생산지, 성분 등)를 확인한다는 내용의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식생활 위생 및 안전’ 역량으로 명명하였고, Cronbach’s α 0.68이었고, 설명력은 11.91%이었다. 요인 4는 농작물 재배 경험을 가지고 있다, 동물복지(인도적 동물사육)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나의 식품 선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의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환경’ 역량으로 명명하였으며 Cronbach’s α 0.66, 설명력은 10.11%이었고, 전체 설명력은 64.05%였다.

Table 3. Factor analysis of eating habits of the subjects

	Factors	Loading	Eigen value	Accumulation variance(%)	Cronbach's α
Healthy eating habit (6)	I have three meals regularly.	0.63	3.14	39.23	0.82
	I chew enough of the reasonable amount of food.	0.69			
	I eat a variety of foods.	0.77			
	I eat protein (meat, fish, eggs, legumes, etc.) food more than twice a day.	0.76			
	I often eat various colors of vegetables and fruits.	0.78			
	I eat seaweeds and milk and dairy products frequently.	0.69			
Bad eating habit (2)	I enjoy processed foods and eating out.	0.88	1.81	22.58 (61.81)	0.74
	I eat sodas or sweets often.	0.85			

Table 4. Factor analysis of dietary management competency of the subjects

Factors		Loading	Eigen value	Accumulation variance(%)	Cronbach's α
Dietary knowledge (9)	I know the nutritional composition and function of each food group.	0.77	4.90	27.39	0.91
	I know how to sort food by food group.	0.75			
	I am familiar with food production, distribution and processing.	0.72			
	I recognize the role of nutrients in preparing meals.	0.69			
	I have a healthy dietary life.	0.69			
	I know how to store and store food properly to keep its quality and value.	0.67			
	I am familiar with the dietary guidelines.	0.66			
	I analyze food-related information and judge it critically.	0.64			
I know how to keep food hygienically safe.	0.62				
Cooking (3)	I can make food according to the given recipe.	0.81	2.64	14.65 (42.03)	0.56
	I know how to make good use of cooking skills depending on the situation.	0.77			
	I know how to handle kitchen utensils and use them in the right place.	0.74			
Dietary sanitation·safety (3)	I clean my hands and cook food hygienically.	0.80	2.14	11.91 (53.94)	0.68
	I have a positive attitude toward eating healthily.	0.79			
	I confirm the food label (expiration date, place of production, ingredient, etc.).	0.61			
Environment (3)	I have experience cultivating crops.	0.78	1.82	10.11 (64.05)	0.66
	I am considering animal welfare (human animal breeding).	0.71			
	I am aware of the environmental impact of my food choices.	0.65			

2. 전공, 성별, 직업에 따른 식생활과 교육, 식습관, 식생활 관리 역량에 대한 인식

연구대상자의 식생활과 교육, 식습관, 식생활 관리 역량에 대한 인식 요인별 전체 평균점수와 직업, 성별, 전공에 따른 차이는 Table 5와 같다. 식생활과 교육에 대한 인식 내용으로 구성된 식생활 관심도는 3.81±0.73점이었다. 예비교사의 식생활 관심도는 3.56±0.70점, 현직교사는 4.08±0.64점으로 현직교사의 식생활 관심도가 예비교사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예비교사의 식생활과 융합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되었다. 남자가 3.58±0.73점, 여자 3.91±0.70점으로 여자의 관심도가 남자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여성들이 가정에서 식생활 관리의 책임을 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식생활과 관련한 교육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초등교육 전공이 3.96±0.69점, 중등교육 전공이 3.71±0.74점으로 초등교육

전공자의 점수가 중등교육 전공자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이는 자신의 전공 수업만 하는 중등 교사에 비해 초등 교사들은 실과를 포함한 여러 교과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음식 만들기과 식생활 관리에 대한 부담 내용으로 구성된 식생활 관리 스트레스는 3.09±0.95점으로 식생활에 대한 관심보다는 낮게 평가되었다. 예비교사가 2.92±0.91점, 현직교사 3.32±0.96점으로 현직교사의 식생활 관리 스트레스가 예비교사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현직교사들이 직업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20대보다 30대 이상이 많아 가족의 식생활을 책임지며, 연령이 증가하면서 식생활 관리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남자가 2.88±0.88점, 여자 3.19±0.96점으로 여자의 식생활 관리 스트레스가 남자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여자들이 가정에서 식사준비와 가족들의 식생활 관리로 인한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초등교육 전공이 3.16±0.95점, 중등교육 전공이 3.05±0.95점으로 초등교육 전공자와 중등교육 전공자와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

Table 5. Dietary and education awareness, eating habits, and dietary management competency according to occupation, sex, and major

Factors	Mean	Occupation			Sex			Major			
		preliminary teacher (n=408)	teacher (n=404)	t	male (n=248)	female (n=564)	t	elementary (n=324)	middle and high (n=488)	t	
Dietary and education awareness	dietary concern	3.81±0.73	3.56±0.70	4.08±0.64	-0.89***	3.58±0.73	3.91±0.70	-6.11***	3.96±0.69	3.71±0.74	4.85***
	dietary management stress	3.09±0.95	2.92±0.91	3.32±0.96	-5.11***	2.88±0.88	3.19±0.96	-4.55***	3.16±0.95	3.05±0.95	1.58
Eating habits	healthy eating habit	3.39±0.77	3.20±0.74	3.52±0.67	-5.22***	3.34±0.73	3.42±0.78	-1.49	3.54±0.79	3.29±0.73	4.525***
	bad eating habit	3.31±0.91	3.57±0.82	2.97±0.96	7.85***	3.38±0.88	3.27±0.92	1.63	3.32±0.88	3.30±0.93	0.35
Dietary management competency	dietary knowledge	3.29±0.67	3.10±0.67	3.35±0.74	-4.35***	3.13±0.67	3.36±0.75	-4.35***	3.50±0.69	3.16±0.73	6.77***
	cooking	3.02±0.82	2.92±0.79	3.21±0.85	-4.17***	2.81±0.76	3.11±0.82	-4.92***	3.04±0.82	3.00±0.81	0.68
	dietary sanitation·safety	4.16±0.63	4.04±0.64	4.20±0.60	-2.96**	4.00±0.66	4.23±0.61	-4.69***	4.22±0.65	4.11±0.62	2.28 [†]
	environment	3.12±0.89	3.06±0.85	3.17±0.85	-1.56	3.03±0.88	3.16±0.89	-1.92	3.25±0.91	3.03±0.86	3.52***
	mean	3.29±0.73	3.36±0.54	3.53±0.60	-3.38**	3.34±0.56	3.56±0.61	-4.92***	3.64±0.60	3.40±0.58	5.57***

* p < 0.05, ** p < 0.01, *** p < 0.001.

지 않았다.

Lee(2014)는 식습관을 예비 초등교사의 식습관 실태 조사연구에서 식행동과 식품선택 습관의 2개 군으로 나누었다. Yoon et al.(2002)은 초·중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긍정적인 문항과 부정적인 문항으로 나누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식습관 요인분석 결과 건강 식습관과 나쁜 식습관으로 구성되었다. 균형식과 건강한 식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 건강 식습관의 평균점수는 3.39±0.77점이었다. 가공식품, 짜고 단 음식 등을 즐긴다는 내용의 나쁜 식습관의 평균점수는 3.31±0.91점으로 건강식습관의 평균점수와 비슷하였다. 건강 식습관은 예비교사 3.20±0.74점, 현직교사 3.52±0.67점으로 현직교사의 건강 식습관이 예비교사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남자가 3.34±0.73점, 여자 3.42±0.78점으로 여자와 남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Lee(2014)가 보고한 예비 초등교사의 식행동 평균 점수는 남자 3.36±0.54점, 여자 3.22±1.20점으로 본 연구의 성별에 따른 평균 점수와 비슷하였다. 초등교육 전공이 3.54±0.79점, 중등교육 전공이 3.29±0.73점으로 초등교육 전공자의 점수가 중등교육 전공자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Yoon et al.(2002)의 연구에서도 초등교사의 식습관 점수가 중등교사보다 높았다(p<0.01)고 보고하였다. 나쁜 식습

관은 예비교사 3.57±0.82점, 현직교사 2.97±0.96점으로 예비교사의 나쁜 식습관 점수가 현직교사보다 유의적으로 높아(p<0.001) 예비교사들의 좋은 식습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자가 3.38±0.88점, 여자 3.27±0.92점으로 여자와 남자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초등교육 전공 3.32±0.88점, 중등교육 전공 3.30±0.93점으로 초등교육 전공자와 중등교육 전공자와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식생활 능력을 Kim과 Lee(2014, 2015)는 식품선택, 식사준비 및 식사하기, 영양관리, 지속가능한 식생활하기, 자기건강 평가의 5개 영역에서 20문항을 개발하였고,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식품 선택, 식사준비, 영양관리, 지속가능한 식생활, 자기건강 평가의 5개 영역으로 구별하여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후 식생활 지식, 조리, 식생활 위생 및 안전, 환경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식생활 관리 역량의 전체평균 점수는 3.29±0.73점으로 낮았다. 식생활 위생 및 안전 요인의 평균점수가 4.16±0.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식생활 지식 요인 3.29±0.67점, 환경 요인 3.12±0.89점, 조리 요인 3.02±0.82점 순이었다. 예비교사 3.36±0.54점, 현직교사 3.53±0.60점으로 현직교사의 식생활 관리 역량이 예비교사보다

유의적으로 높아($p<0.01$) 예비교사 식생활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요구되었다. 남자가 3.34 ± 0.56 점, 여자 3.56 ± 0.61 점으로 여자의 식생활 관리 역량이 남자보다 유의적으로 높아($p<0.001$) 남자의 식생활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적극적으로 요구되었다. 초등교육 전공 3.64 ± 0.60 점, 중등교육 전공 3.40 ± 0.58 점으로 초등교육 전공자가 중등교육 전공자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Kim과 Kim(2016)의 연구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한 예비 초등학교 교사의 식생활 능력은 교육 전 3.28 ± 0.47 점에서 교육 후 3.97 ± 0.54 점이었다고 보고하였다. 교육 전 점수는 본 연구의 전체 평균점수 (3.29 ± 0.73), 중등 예비교사가 포함된 3.36 ± 0.54 점과 비슷하였다. 따라서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식생활 관리 역량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지식 내용으로 구성된 식생활 지식 요인은 예비교사 3.10 ± 0.67 점, 현직교사 3.35 ± 0.74 점으로 현직교사가 인식한 식생활 지식 요인이 예비교사가 인식한 역량보다 유의적으로 높아($p<0.001$) 예비교사의 식생활 지식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되었다. 남자가 3.13 ± 0.67 점, 여자 3.36 ± 0.75 점으로 여자들이 인식한 식생활 지식 역량이 남자들이 인식한 점수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생활자립 역량과 건강하고 행복한 개인 및 가정생활을 강조하는 가정교과는 남녀의 구분 없이 평등하게 실시되고 있다. 식생활 관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자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관리와 관련한 교육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초등교육 전공이 3.50 ± 0.69 점, 중등교육 전공 3.16 ± 0.73 점으로 초등교육 전공자의 점수가 중등교육 전공자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생활과 연계된 교육, 융합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현 교육과정에서 식생활 영역은 예비교사와 현직교사 개개인의 건강관리 뿐 아니라 창의성 개발, 융합 교육을 위한 좋은 소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중등교육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관리와 식생활 영역을 활용한 융합 교육을 위한 기초교육으로 보다 적극적인 식생활 교육이 요구되었다. 음식 만들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 조리 역량 요인은 예비교사 2.92 ± 0.79 점, 현직교사 3.21 ± 0.85 점으로 현직교사의 조리 역량이 예비교사보다 유의적으로 높아($p<0.001$)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조리 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었다. 남자가 2.81 ± 0.76 점, 여자 3.11 ± 0.82 점으로 여자의 조리 역량이 남자

보다 유의적으로 높아($p<0.001$) 남자의 조리 역량 함양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었다. 초등교육 전공이 3.04 ± 0.82 점, 중등교육 전공이 3.00 ± 0.81 점으로 초등교육 전공자와 중등교육 전공자와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식생활 안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 식생활 위생 및 안전 역량 요인은 예비교사 4.04 ± 0.64 점, 현직교사 4.20 ± 0.60 점으로 현직교사의 식생활 위생 및 안전 역량이 예비교사보다 유의적으로 높아($p<0.01$)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식생활 위생 및 안전 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었다. 남자가 4.00 ± 0.66 점, 여자 4.23 ± 0.61 점으로 여자의 식생활 위생 및 안전 역량이 남자보다 유의적으로 높아($p<0.001$) 남자의 식생활 위생 및 안전 역량 함양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었다. 초등교육 전공이 4.22 ± 0.65 점, 중등교육 전공이 4.11 ± 0.62 점으로 초등교육 전공자가 중등교육 전공자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과 관련된 환경 역량 요인은 예비교사는 3.06 ± 0.85 점, 현직교사는 3.17 ± 0.85 점으로 예비교사와 현직교사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자가 3.03 ± 0.88 점, 여자 3.16 ± 0.89 점으로 여자와 남자 사이에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초등교육 전공이 3.25 ± 0.91 점, 중등교육 전공이 3.03 ± 0.86 점으로 초등교육 전공자의 환경 역량이 중등교육 전공자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3. 연령과 건강상태에 따른 식생활과 교육, 식습관, 식생활 관리 역량에 대한 인식

연구대상자의 연령과 건강상태에 따른 식생활과 교육, 식습관, 식생활 관리 역량에 대한 인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식생활 관심도는 20대가 3.58 ± 0.70 점이었고, 30대 3.94 ± 0.64 점, 40대 4.18 ± 0.61 점, 50대 이상 4.23 ± 0.68 점으로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50대 이상이 가장 높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식생활 및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매우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연구대상자의 식생활 관심도는 3.89 ± 0.77 점,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연구대상자는 3.86 ± 0.67 점, 보통으로 인식하는 연구대상자는 3.69 ± 0.78 점, 허약하다고 인식하는 연구대상자는 3.56 ± 0.71 점으로 매우 건강하거나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연구대상자와 허약하거나 허약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연구

Table 6. Dietary and education awareness, eating habits, and dietary management competency according to age and health condition

Factors	Age				F	Health condition				F	
	20's (n=457)	30's (n=124)	40's (n=128)	50's- (n=103)		excellent (n=185)	good (n=390)	fair (n=194)	poor (n=43)		
Dietary and education awareness	dietary concern	3.58±0.70 ^c	3.94±0.64 ^b	4.18±0.61 ^a	4.23±0.68 ^a	44.96 ^{***}	3.89±0.77 ^a	3.86±0.67 ^a	3.69±0.78 ^b	3.56±0.71 ^b	5.02 ^{**}
	dietary management stress	2.92±0.91 ^b	3.35±0.95 ^a	3.25±0.96 ^a	3.35±0.96 ^a	12.55 ^{***}	2.97±1.03	3.13±0.94	3.13±0.90	3.15±0.87	1.28
Eating habits	healthy eating habit	3.24±0.74 ^c	3.43±0.77 ^b	3.79±0.78 ^a	3.54±0.63 ^b	20.44 ^{***}	3.67±0.81 ^a	3.45±0.69 ^b	3.13±0.76 ^c	2.92±0.64 ^c	23.61 ^{***}
	bad eating habit	3.57±0.81 ^a	3.29±0.86 ^b	2.98±0.90 ^c	2.57±0.88 ^d	47.49 ^{***}	3.21±0.96 ^c	3.26±0.88 ^{bc}	3.43±0.92 ^{ab}	3.60±0.83 ^a	3.84 ^{**}
Dietary management competency	dietary knowledge	3.14±0.68 ^c	3.32±0.74 ^b	3.64±0.71 ^{ab}	3.51±0.77 ^a	20.87 ^{***}	3.48±0.78 ^a	3.31±0.71 ^b	3.15±0.71 ^c	2.98±0.61 ^c	9.38 ^{***}
	cooking	2.92±0.78 ^b	3.17±0.82 ^a	3.06±0.85 ^{ab}	3.19±0.86 ^a	5.16 ^{**}	2.90±0.92	3.02±0.81	3.11±0.72	3.05±0.75	1.98
	dietary sanitation·safety	4.07±0.64 ^c	4.16±0.63 ^{bc}	4.35±0.58 ^a	4.30±0.61 ^{ab}	8.48 ^{***}	4.24±0.66 ^a	4.18±0.60 ^{ab}	4.06±0.64 ^{bc}	3.95±0.71 ^c	4.28 ^{**}
	environment	3.07±0.85 ^b	2.98±0.88 ^b	3.31±1.02 ^a	3.24±0.85 ^{ab}	4.01 ^{**}	3.33±0.97 ^a	3.11±0.88 ^b	2.96±0.83 ^b	2.92±0.83 ^b	6.47 ^{***}
	mean	3.39±0.55 ^b	3.47±0.62 ^b	3.76±0.62 ^a	3.65±0.63 ^a	15.56 ^{***}	3.66±0.66 ^a	3.51±0.58 ^b	3.37±0.55 ^c	3.22±0.48 ^c	10.63 ^{***}

* p < 0.05, ** p < 0.01, *** p < 0.001

abc: 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he result of Ryan-Einot-Gabriel-Welsch F.

대상자의 식생활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식생활 관리 스트레스는 20대가 2.92±0.91점이었고, 30대 3.35±0.95점, 40대 3.25±0.96점, 50대 이상 3.35±0.96점으로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식생활 관리 스트레스가 유의적으로 낮았다(p<0.001). 이는 20대의 건강과 체력, 식생활의 책임 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담이 적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매우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연구대상자의 식생활 관심도는 2.97±1.03점,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연구대상자는 3.13±0.94점, 보통으로 인식하는 연구대상자는 3.13±0.90점, 허약하다고 인식하는 연구대상자는 3.15±0.87점으로 건강상태 인식 군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건강 식습관은 20대가 3.24±0.74점이었고, 30대 3.43±0.77점, 40대 3.79±0.78점, 50대 이상 3.54±0.63점으로 4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건강 식습관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고,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 (p<0.001). 20대의 식생활 관리가 중년기, 노년기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20대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20대의 식생활 관리가 요구되었다. Yoon et al.(2002)의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식습관 점수가 높아졌고, 50대의 식습관 점

수가 20-30대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다(p<0.001)고 보고하였다. 매우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연구대상자의 식생활 관심도는 3.67±0.81점,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연구대상자는 3.45±0.69점, 보통으로 인식하는 연구대상자는 3.13±0.76점, 허약하다고 인식하는 연구대상자는 2.92±0.64점으로 매우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집단,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집단, 보통과 허약하다고 인식하는 집단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허약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에 좋은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쉽게 활용할 수 있고,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자료, 매체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나쁜 식습관은 20대가 3.57±0.81점이었고, 30대 3.29±0.86점, 40대 2.98±0.90점, 50대 이상 2.57±0.88점으로 20대가 가장 높았고, 연령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나쁜 식습관의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우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연구대상자의 식생활 관심도는 3.21±0.96점,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연구대상자는 3.26±0.88점, 보통으로 인식하는 연구대상자는 3.43±0.92점, 허약하다고 인식하는 연구대상자는 3.60±0.83점으로 허약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이 매우 건강,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에 비

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1$).

식생활 관리 역량의 평균점수는 20대가 3.39 ± 0.55 점이었고, 30대 3.47 ± 0.62 점, 40대 3.76 ± 0.62 점, 50대 이상 3.65 ± 0.63 점으로 50대 이상의 연구대상자가 20-30대 연구대상자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매우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연구대상자의 식생활 관리 역량 평균점수는 3.66 ± 0.66 점,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연구대상자는 3.51 ± 0.58 점, 보통으로 인식하는 연구대상자는 3.37 ± 0.55 점, 허약하다고 인식하는 연구대상자는 3.22 ± 0.48 점으로 매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연구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연구대상자보다 유의적으로 높았고, 보통이거나 허약하다고 인식하는 연구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연구대상자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p<0.001$). 식생활 관리 역량의 식생활 지식 요인은 20대가 3.14 ± 0.68 점이었고, 30대 3.32 ± 0.74 점, 40대 3.64 ± 0.71 점, 50대 이상 3.51 ± 0.77 점으로 40대 이상이 20-30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매우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연구대상자는 3.48 ± 0.78 점,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연구대상자는 3.31 ± 0.71 점, 보통으로 인식하는 연구대상자는 3.15 ± 0.71 점, 허약하다고 인식하는 연구대상자는 2.98 ± 0.61 점으로 허약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이 매우 건강,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p<0.001$). 매우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연구대상자의 식생활 관리 역량 평균점수는 3.66 ± 0.66 점,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연구대상자는 3.51 ± 0.58 점, 보통으로 인식하는 연구대상자는 3.37 ± 0.55 점, 허약하다고 인식하는 연구대상자는 3.22 ± 0.48 점으로 허약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이 매우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p<0.001$). 식생활 관리 역량의 조리 요인은 20대가 2.92 ± 0.78 점이었고, 30대 3.17 ± 0.82 점, 40대 3.06 ± 0.85 점, 50대 이상 3.19 ± 0.86 점으로 4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p<0.01$). 매우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연구대상자는 2.90 ± 0.92 점,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연구대상자는 3.02 ± 0.81 점, 보통으로 인식하는 연구대상자는 3.11 ± 0.72 점, 허약하다고 인식하는 연구대상자는 3.05 ± 0.75 점으로 건강상태 인식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식생활 관리 역량의 식생활 위생 및 안전 요인은 20대가 4.07 ± 0.64 점이었고, 30대 4.16 ± 0.63 점, 40대 4.35 ± 0.58 점, 50대 이상 4.30 ± 0.61 점으로 40대가 20-30대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매우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연구대상자는 4.24 ± 0.66 점,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연구대상자는 4.18 ± 0.60 점,

보통으로 인식하는 연구대상자는 4.06 ± 0.64 점, 허약하다고 인식하는 연구대상자는 3.95 ± 0.71 점으로 매우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이 보통이나 허약하다고 인식하는 집단보다 유의적으로 높아($p<0.01$) 식생활 위생 및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증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식생활 관리 역량의 환경 요인은 20대가 3.07 ± 0.85 점이었고, 30대 2.98 ± 0.88 점, 40대 3.31 ± 1.02 점, 50대 이상 3.24 ± 0.85 점으로 40대가 20-30대 연구대상자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1$). 매우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연구대상자는 3.33 ± 0.97 점,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연구대상자는 3.11 ± 0.88 점, 보통으로 인식하는 연구대상자는 2.96 ± 0.83 점, 허약하다고 인식하는 연구대상자는 2.92 ± 0.83 점으로 매우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연구대상자가 다른 집단보다 환경 역량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4. 비만도와 식사준비 참여 횟수에 따른 식생활과 교육, 습관, 식생활 관리 역량에 대한 인식

연구대상자의 비만도와 식사준비 참여 횟수에 따른 식생활과 교육, 습관, 식생활 관리 역량에 대한 인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식생활 관심도는 저체중군 3.72 ± 0.74 점이었고, 정상 체중군 3.78 ± 0.70 점, 과체중군 3.95 ± 0.80 점, 비만군 3.82 ± 0.69 점으로 체중군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과체중군의 관심도가 가장 높았고, 체중이 증가할수록 식생활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거의 매일 식사준비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식생활 관심도는 4.00 ± 0.72 점, 주 3-5번 참여하는 연구대상자는 3.97 ± 0.71 점, 주 1-2번은 3.66 ± 0.67 점, 거의 참여하지 않는 연구대상자는 3.55 ± 0.71 점으로 주 3번 이상 참여하는 연구대상자가 주 2번 이하 참여하는 집단에 비해 식생활 관심도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식생활에 대한 높은 관심은 식생활 관리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식사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식생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식생활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개인과 가족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식생활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는 저체중군이 3.23 ± 1.02 점이었고, 정상 체중군 3.06 ± 0.94 점, 과체중군은 3.15 ± 0.95 점, 비만군은 3.09 ± 0.95 점으로 체중군에 따라

Table 7. Dietary and education awareness, eating habits, and dietary management competency according to obesity index and number of meal preparation

Factors		Obesity index				F	Number of meals preparation				F
		under weight (n=65)	normal weight (n=563)	over weight (n=157)	obesity (n=27)		every (n=274)	3-5/week (n=217)	1-2/week (n=159)	nothing (n=162)	
Dietary and education awareness	dietary concern	3.72±0.74 ^b	3.78±0.70 ^b	3.95±0.80 ^a	3.82±0.69 ^{ab}	2.71*	4.00±0.72 ^a	3.97±0.71 ^a	3.66±0.67 ^b	3.55±0.71 ^b	16.62 ^{***}
	dietary management stress	3.23±1.02	3.06±0.94	3.15±0.95	3.09±0.95	0.85	3.14±1.02 ^b	2.92±0.93 ^c	2.97±0.86 ^{bc}	3.36±0.88 ^a	7.89 ^{***}
Eating habits	healthy eating habit	3.49±0.80	3.39±0.77	3.41±0.76	3.14±0.61	1.34	3.56±0.78 ^a	3.43±0.74 ^{ab}	3.31±0.75 ^{bc}	3.15±0.72 ^c	11.37 ^{***}
	bad eating habit	3.19±0.99 ^b	3.29±0.90 ^b	3.31±0.93 ^b	3.81±0.74 ^a	3.20*	3.03±0.87 ^b	3.21±0.91 ^b	3.53±0.83 ^a	3.68±0.88 ^a	23.32 ^{***}
Dietary management competency	dietary knowledge	3.33±0.77	3.28±0.73	3.34±0.75	3.14±0.75	0.74	3.48±0.72 ^a	3.35±0.71 ^{ab}	3.22±0.70 ^{bc}	2.98±0.71 ^c	17.35 ^{***}
	cooking	2.90±0.79 ^b	2.96±0.81 ^b	3.23±0.81 ^a	3.23±0.80 ^b	5.68 ^{**}	3.01±0.83 ^b	2.89±0.82 ^b	2.95±0.76 ^b	3.26±0.80 ^a	7.05 ^{***}
	dietary sanitation·safety	4.18±0.73	4.15±0.60	4.16±0.69	4.20±0.70	0.11	4.27±0.63 ^a	4.20±0.60 ^{ab}	4.08±0.61 ^{bc}	3.98±0.67 ^c	8.34 ^{***}
	environment	3.08±0.91	3.13±0.90	3.12±0.83	2.93±0.88	0.49	3.18±1.00 ^b	3.14±0.83 ^b	3.18±0.81 ^b	2.93±0.80 ^b	3.15 [*]
	mean	3.48±0.64	3.49±0.59	3.53±0.61	3.40±0.59	0.46	3.64±0.61 ^a	3.55±0.56 ^{ab}	3.46±0.55 ^b	3.19±0.58 ^c	21.54 ^{***}

* p < 0.05, ** p < 0.01, *** p < 0.001

abc: 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he result of Ryan-Einot-Gabriel-Welsch F.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식생활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는 거의 매일 식사준비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 3.14±1.02점, 주 3-5번 참여하는 연구대상자 2.92±0.93점, 주 1-2번 참여하는 연구대상자 2.97±0.86점, 거의 참여하지 않는 연구대상자 3.36±0.88점으로 식사준비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연구대상자의 식생활 관리 스트레스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식사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식생활 영역을 활용한 융합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식생활 관리의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으므로 식사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건강 식습관은 저체중군 3.49±0.80점이었고, 정상 체중군 3.39±0.77점, 과체중군은 3.41±0.76점, 비만군은 3.14±0.61점으로 체중군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거의 매일 식사준비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건강 식습관은 3.56±0.78점, 주 3-5번 참여하는 연구대상자는 3.43±0.74점, 주 1-2번은 3.31±0.75점, 거의 참여하지 않는 연구대상자는 3.15±0.72점으로 매일 식사준비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가 주 2회 이하로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가정에서 식사준비에 참여하는 횟수를 증가시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쁜 식습관은 저체중군이 3.19±0.99점이었고, 정상 체중군 3.29±0.90점, 과체중군은 3.31±0.93점, 비만군은 3.81±0.74점으로 비만인 집단이 나쁜

식습관 점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비만인 연구대상자의 나쁜 식습관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었다. 거의 매일 식사준비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는 3.03±0.87점, 주 3-5번 참여하는 연구대상자는 3.21±0.91점, 주 1-2번은 3.53±0.83점, 거의 참여하지 않는 연구대상자는 3.68±0.88점으로 식사준비에 참여하는 횟수가 적을수록 나쁜 식습관의 점수가 높아졌고, 주 3회 이상 참여하는 집단이 주 2회 이하로 참여하는 집단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아졌다(p<0.001). 따라서 가정에서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식사준비에 참여하는 횟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나쁜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식생활 관리 역량의 평균점수는 저체중군 3.48±0.64점이었고, 정상 체중군 3.49±0.59점, 과체중군은 3.53±0.61점, 비만군 3.40±0.59점으로 체중군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거의 매일 식사준비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는 3.64±0.61점, 주 3-5번 참여하는 연구대상자는 3.55±0.56점, 주 1-2번은 3.46±0.55점, 거의 참여하지 않는 연구대상자는 3.19±0.58점으로 식사준비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연구대상자의 식생활 관리 역량의 평균점수가 유의적으로 낮았다(p<0.001). 식생활 지식 역량 요인은 저체중군 3.33±0.77점이었고, 정상 체중군 3.28±0.73점, 과체중군은 3.34±0.75점, 비만군 3.14±0.75점으로 체중군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거의 매일

식사준비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식생활 관심도는 3.48±0.72 점, 주 3-5번 참여하는 연구대상자는 3.35±0.71 점, 주 1-2번은 3.22±0.70 점, 거의 참여하지 않는 연구대상자는 2.98±0.71 점으로 매일 참여하는 연구대상자가 주 2회 이하로 참여하는 연구 대상자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조리 역량 요인은 저체중군 2.90±0.79 점이었고, 정상 체중군 2.96±0.81 점, 과체중 군은 3.23±0.81 점, 비만군 3.23±0.80 점으로 저체중과 정상체중 군의 조리 역량이 과체중군, 비만군의 조리 역량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p<0.01). 이는 과체중과 비만군이 음식과 조리에 관심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거의 매일 식사준비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는 3.01±0.83 점, 주 3-5번 참여하는 연구대상자는 2.89±0.82 점, 주 1-2번은 2.95±0.76 점, 거의 참여하지 않는 연구대상자는 3.26±0.80 점으로 식사준비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연구대상자의 조리 역량이 유의적으로 낮았다(p<0.001). 비만 군의 나쁜 식습관과 조리 역량 점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반면, 식사준비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 비만군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식사준비 참여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요구되었다. 식생활 위생 및 안전 역량 요인은 저체중군 4.18±0.73 점이었고, 정상 체중군 4.15±0.60 점, 과체중군은 4.16±0.69 점, 비만군 4.20±0.70 점으로 체중군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거의 매일 식사준비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는 4.27±0.63 점, 주 3-5번 참여하는 연구대상자는 4.20±0.60 점, 주 1-2번은 4.08±0.61 점, 거의 참여하지 않는 연

구대상자는 3.98±0.67 점으로 매일 식사준비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가 주 2회 이하로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최근 불량식품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식생활 위생 및 안전의 중요성을 갈수록 강조된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 뿐 아니라 가정의 화목, 식생활 영역을 활용하여 융합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가정에서 식사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지가 요구되었다. 환경 요인은 저체중군이 3.08±0.91 점이었고, 정상 체중군 3.13±0.90 점, 과체중군은 3.12±0.83 점, 비만군은 2.93±0.88 점으로 체중군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거의 매일 식사준비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는 3.18±1.00 점, 주 3-5번 참여하는 연구대상자는 3.14±0.83 점, 주 1-2번은 3.18±0.81 점, 거의 참여하지 않는 연구대상자는 2.93±0.80 점으로 거의 식사준비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연구대상자의 환경 역량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식사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식생활을 통한 환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식생활과 교육, 식습관, 식생활 관리 역량 요인간의 상관관계

예비교사와 교사의 식생활과 교육, 식습관, 식생활 관리 역량

Table 8. Correlation between the factors of dietary and education awareness, eating habits, and dietary management competency

Factors	Dietary concern	Dietary management stress	Healthy eating habit	Bad eating habit	Dietary knowledge	Cooking	Dietary sanitation · safety	Environment
Dietary concern	1	0.01	0.41***	-0.19***	0.53***	0.04	0.43***	0.37***
Dietary management stress		1	-0.08*	0.17***	-0.14***	0.89***	-0.10**	-0.06
Healthy eating habit			1	-0.24***	0.58***	-0.12**	0.41***	0.36***
Bad eating habit				1	-0.21***	0.26***	-0.09**	-0.02
Dietary knowledge					1	-0.12**	0.49***	0.49***
Cooking						1	-0.08*	-0.03
Dietary sanitation · safety							1	0.29***
Environment								1

* p < 0.05, ** p < 0.01, *** p < 0.001.

요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식생활 관심도는 건강 식습관, 식생활 지식 역량, 식생활 위생 및 안전 역량, 환경 역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01$). 반면, 나쁜 식습관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p<0.001$) 식생활 관리 스트레스는 나쁜 식습관, 조리 역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01$). 반면, 건강 식습관, 식생활 지식 역량, 식생활 위생 및 안전 역량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 건강 식습관은 식생활 지식 역량, 식생활 위생 및 안전 역량, 환경 역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p<0.001$) 나쁜 식습관, 조리 역량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나쁜 식습관은 조리 역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01$). 반면, 식생활 지식 역량, 식생활 위생 및 안전 역량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식생활 지식 역량은 식생활 위생 및 안전 역량, 환경 역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p<0.001$) 조리 역량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01$). 조리 역량은 식생활 위생 및 안전 역량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 식생활 위생 및 안전 역량은 환경 역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01$). 따라서 식생활 위생 및 안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되었다. 또한 식생활 및 식생활 영역을 활용한 융합 교육에 대한 관심이 건강 식습관과 식생활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으므로 예비교사와 교사를 대상으로 식생활 영역을 활용한 융합 교육과 관련한 식생활 교육과 홍보가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식생활과 교육에 대한 관심, 식습관, 식생활 관리 역량을 알아보기 위해 예비교사와 교사 822명을 대상으로 5점 척도의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실시되었고, SPSS PC+2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 기술통계, ANOVA,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식생활과 교육에 대한 인식은 식생활 관심도와 식생활 관리 스트레스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식습관은 건강 식습관과 나쁜 식습관의 2개 요인으로

이루어졌다. 식생활 관리 역량은 식생활 지식, 조리, 식생활 위생 및 안전, 환경의 4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식생활 관심도는 3.81 ± 0.73 점, 식생활 관리 스트레스는 3.09 ± 0.95 점이었다. 식생활 관심도는 전공, 성별, 직업, 연령, 건강상태, 비만도, 식사준비 참여 횟수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식생활 관리 스트레스는 성별, 직업, 연령, 식사준비 참여 횟수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셋째, 연구대상자의 건강 식습관의 평균점수는 3.39 ± 0.77 점, 나쁜 식습관은 3.31 ± 0.91 점으로 건강한 식습관과 나쁜 식습관의 평균점수는 비슷하였다. 건강 식습관은 전공, 직업, 연령, 건강상태, 식사준비 참여 횟수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나쁜 식습관은 직업, 연령, 건강상태, 비만도, 식사준비 참여 횟수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넷째, 연구대상자의 식생활 관리 역량의 전체평균 점수는 3.29 ± 0.73 점으로 낮았다. 식생활 위생 및 안전 요인의 평균점수가 4.16 ± 0.63 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식생활 지식 요인 3.29 ± 0.67 점, 환경 요인 3.12 ± 0.89 점, 조리 요인 3.02 ± 0.82 점 순이었다. 식생활 관리 역량의 전체평균 점수는 전공, 성별, 직업, 연령, 건강상태, 식사준비 참여 횟수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식생활 지식 요인은 전공, 성별, 직업, 연령, 건강상태, 식사준비 참여 횟수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조리 요인은 전공, 성별, 직업, 연령, 비만도, 식사준비 참여 횟수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식생활 위생 및 안전 요인은 전공, 성별, 직업, 연령, 건강상태, 식사준비 참여 횟수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환경 요인은 전공, 연령, 건강상태, 식사준비 참여 횟수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다섯째, 식생활과 교육에 대한 인식, 식습관, 식생활 관리 역량의 요인들 간은 대부분 양의 상관관계는 보였으나($p<0.05$), 식생활 관심도와 건강 식습관, 식생활 위생 및 안전 요인 간에는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 식생활 관심도와 나쁜 식습관, 식생활 관리 스트레스와 건강 식습관, 식생활 지식 요인, 식생활 위생 및 안전 요인, 건강 식습관과 나쁜 식습관, 조리 요인, 나쁜 식습관과 식생활 지식 요인, 식생활 위생 및 안전 요인, 환경 요인, 조리 요인과 식생활 위생 및 안전 요인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

결론적으로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는 식생활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사회적 역량 강화와 창의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식생활 영역을 활용한 융합 교육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도 높은 편으로 식생활 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으로 식생활 관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며, 나쁜 식습관을 바꿀 수 있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식생활 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조리 역량의 강화가 요구되었는데 남자, 예비교사, 20대와 40대의 조리 역량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 식사 준비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예비교사와 현직교사가 스스로 인식하는 조리 역량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p<0.001$) 실제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조리 역량 강화 교육이 요구되었다. 식사준비에 참여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식생활 관심도, 건강 식습관, 식생활 지식 역량, 식생활 위생 및 안전 역량, 환경 역량은 높았으나 식생활 관리 스트레스, 나쁜 식습관, 조리 역량은 낮았다. 따라서 식사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식생활 영역을 활용한 융합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예비교사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및 식생활 영역을 활용한 융합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자료 개발이 요구되었다.

참고문헌

- Chae, J. H., Park, M. J., Kim, S. G., & Han, J. (2017). *Introduction to home economics education*. Paju: Gyomoonasa.
- Choi, A. J. (2011). *Transfer system of dietary life safety information and development of consumer-based education progra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of Life and Environmental Science, Seoul, Korea.
- Hyun, E. J., Lee, N. E., & Kim, K. Y. (2014). Content analysis of food and dietary life represented in Korean picture books.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15(4), 1-23.
- Jeon, S. K., & Lim, S. J. (2017). The effect of the dietary practice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on the perception of necessity for dietary education.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30(4), 27-48.
- Jung, K. A. (2012). A study on the dietary habits of 5th & 6th grade students and the dietary life education by teachers -focused on the elementary schools in Chuncheon area-. *The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18(3), 266-285.
- Kang, K. S. (2017).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dietary life education programs for activation of the rural convergence industr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 461-469.
- Kim, E. S., Cho, H. J., & Kim, Y. H. (2015). A study of the relationship of green dietary education, self-esteem and happiness of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7(3), 63-77.
- Kim, H. S. (2015). Traditional foods: historical perspectives and future prospec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etary Culture*, 30(1), 1-7.
- Kim, H. S., & Kim, J. W. (2016a). Prospective elementary teachers' evaluation of dietary life education program for improving their dietary life education, food literacy, and agricultural literacy. *The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2(2), 107-122.
- Kim, H. S., Kim, S.J. (2011). Elementary school teachers' recognition of green dietary life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Science*, 13(1), 75-94.
- Kim, J. D. (2012). *음식문명자, 음식시대를 만나다*. Tabi: Seoul.
- Kim, J. W., & Lee, E. J. (2014). Evaluation of dietary habits and dietary life competenc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7(4), 17-37.
- Kim, J. W., & Lee, E. J. (2015). An evaluation of dietary habits and dietary life competency of elementary school parents. *The Korean Journal of Food and Cookery*

- Science*, 31(2), 162-174.
- Kim, Y. H. (2018). Fusion Competency and Utilization of Dietary Area Convergence Teaching Efficacy of Teachers and Preliminary Teachers. *The Journal of Practical Arts Education Research*, 24(3), 47-67.
- Kim, Y. H., & Park, P. Y. (2017).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a club activity program to strengthen the adulterated food management capacity of adolescents. *The Journal of Practical Arts Education Research*, 23(4), 227-245.
- Kim, Y. J., Lee, J. E., Lee, S. Y., & Jung, I. K. (2005).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teachers on dietary behavior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nutrition education in Practical Art education. *Korean Education Inquiry*, 21, 99-120.
- Kim, Y. S., & Kim, K. S. (2016b). A comparative study on curriculums related to biotechnology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 *The Korean Journal of Technology Education*, 16(1), 23-55.
- Lee, E. J. (2017a). Trends and direction of dietary education research in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30(1), 83-106.
- Lee, H. J., & Lee, J. H. (2016). A study on the E-STEAM program for dietary management and English educ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0(3), 39-72.
- Lee, K. A. (2014).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eating habits, and their perceptions of eating traditional Korean foods, based on the health belief model.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7(1), 45-65.
- Lee, S. S. (2017b). Changes of dietary life competency and five senses through dietary life education program applied practice model by integrated approach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3(2), 23-44.
- Lim, M. S., Han, G. P., & Kim, Y. H. (2018). Development of dietary education program to cultivate creative ability - focusing on solving the problem of adulterated food -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4(2), 1-17.
-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6). Dietary education support act.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ccessed day 2018. 7. 22.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11008#0000>
- Ministry of Education (2011). *실과(기술 가정)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10].
- Ministry of Education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1].
- Moon, S. J., & Lee, Y. M. (1986). The study of value evaluation of foods in urba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od Culture*, 1(2), 142-156.
- Ra, Y. S. (2015). History of eating : another way to understand people. *The Korean Journal of History of Historiography*, 32, 455-492.
- Sang, E. Y., & Kim, J. W. (2016). Development of STEAM dietary education program for the improvement of core competencie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9(1), 1-18.
- Vidgen, H., & Gallegos, D. (2011). *What is food literacy and does it influence what we eat: a study of Australian food experts*.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Brisbane, Queensland.
- Yang, S. J., Chae, J. H., Yu, N. S., & Park, M. J. (2015). The analysis of duplicated contents of 'Food and Nutrition unit' of Home Economics and other subject textbooks for the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7(1), 31-50.
- Yoon, H. S., Choi, Y. S., & Lee, K. H. (2002). Nutrition knowledge, dietary habits and nutrition attitude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eachers in Masan c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31(1), 160-169.

<국문요약>

교사의 건강과 식생활에 대한 태도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 예비교사와 교사의 식생활과 교육에 대한 인식, 식습관, 식생활 관리 역량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경기, 충청, 전라, 강원, 경상 지역의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와 초·중·고등학교 교사 812명을 대상으로 5-Likert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24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다.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Cronbach's α 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식생활과 교육에 대한 인식, 식습관, 식생활 관리 역량의 일반사항에 따른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와 Ryan-Einot-Gabriel-Welsch F를 이용하여 $p < 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 식생활과 교육에 대한 인식은 식생활 관심도와 식생활 관리 스트레스의 2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식습관은 건강 식습관과 나쁜 식습관의 2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식생활 관리 역량은 식생활 지식, 조리, 식생활 위생 및 안전, 환경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식생활 관심도 평균은 3.81 ± 0.73 점, 식생활 관리 스트레스 3.09 ± 0.95 점이었다. 건강 식습관은 3.39 ± 0.77 점, 나쁜 식습관 3.31 ± 0.91 점, 식생활 관리 역량 평균 점수는 3.29 ± 0.73 점이었다. 식생활 지식 요인 3.29 ± 0.67 점, 조리 요인 3.02 ± 0.82 점, 식생활 위생 및 안전 요인 4.16 ± 0.63 점, 환경 요인 3.12 ± 0.89 점이었다. 예비교사와 교사는 식생활 관리 역량의 환경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1$). 식생활 관심 요인은 성별, 전공, 나이, 건강상태, 비만도, 식사준비참여 횟수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5$). 식생활 관리 역량의 평균점수는 성별, 전공, 나이, 건강상태, 식사준비참여 횟수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1$). 예비교사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은 일반사항에 따른 차이점을 고려하고, 식사준비에 참여하는 횟수를 높여 식생활 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건강한 식습관이 형성되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요구되었다. 또한 식생활 영역을 활용한 융합 교육을 도울 수 있는 자료 개발이 요구되었다.

■ 논문접수일자: 2018년 7월 31일, 논문심사일자: 2018년 8월 7일, 게재확정일자: 2018년 9월 30일